



대전시의회 의장선출 잡음에 시민들 '눈총'

더민주 내부 갈등 고조... 감투싸움 비난 자초 대전 동춘당 고택·소대현과 호연재

대전시의회 의장선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간에 갈등이 표출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장선출문제로 당의 불협화음이 밖으로 노출되면서 감투싸움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의장 선출문제가 충분한 논의로 원만히 조정되지 못하고 세력규합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그래서 나온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재적 의원 22석 중 16명이 더민주 소속이고 6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더민주에서 의장이 선출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따라 더민주당 대전시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차기 의장단으로 권중순 의장 후보와 조원휘 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훈 의원이 의장후보로 등록하고 김 의원을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내홍이 일고 있다.

의장단 선출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는 것이 반발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1일 당의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위배하면 당헌·당규로 징계한다며 반발이유를 일축했다.

더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은 중앙당 지침에 의거하여 지난 6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선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자리를 이탈한 의원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해당 의원총회는 성립되었으며 그 결과 역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당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은 "중앙당 지침, 시의원 간 합의한 문건은 지켜져야 하며, 공인으로서 위배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이날 오전 시의원들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훈 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하자, 이는 당규 제10호 14조에 명시된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명백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민주당 대전시당은 신속히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의장 후보로 등록한 김경훈 의원을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전시의 발전과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감투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어 의장 선출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태성기자

이주영, 새누리당 당대표 출마 선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5선·경남 마산합포·사진)이 8·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3일 오전 이주영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대표는 대선 승리를 이끌 역량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며 "나·이주영이 국가위난 상황에서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 강한 리더십으로 새누리당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6대 총선(창원)에서 원내 입성해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지낸 5선이다.

김정환기자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대전 동춘당 고택」과 「대전 소대현과 호연재」를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대전 동춘당 고택」(현 대전시 유영문화재 제3호「희덕 동춘 고택」)은 조선 후기 기호학파의 대표적 인 학자인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의 5대조 송요년(1429~1499)이 15세기 후반에 처음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몇 차례 옮겨 지었으며, 현재는 1835년 중건할 때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임진왜란 이전 충청 지역 살림집의 흔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희소성이 있고, 상량문(上樑文) 기록 등을 통해 변천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고택의 안채는 충청지역에서는 드문 'ㄷ'자형 평면을 이루며, 중앙에 놓인 6칸 규모의 대청과 양통 집 구조인 서쪽의 날개채, 세로로 긴 안마당 구성은 이 지역 상류주택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규모가 큰 일지형의 사랑채는 큰 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이 별도의 마루방을 갖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내·외 담이 설치되어 있다. 담은 그리 높지 않지만 안채와 사랑채의 높이를 고려하여 시선을 차단할 정도의 가림벽 역할을 하고 있어 세심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대전 동춘당 고택은 조선 후기 호서지역의 명현인 동춘당 송준길의 종가로, 불천위(不遷位) 제사와 기타 제례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또한,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고문서 등은 조선 중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생활사와 지역 향촌사회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대전 소대현과 호연재」(현 대전시 민속문화재 제2호「송영역 가옥」)는 동춘당 송준길의 둘째 손자인 송병하(1646~1697)가 1674년 분가하여 건립한 고택으로, 송병하의 아들 소대현 송요화(1682~1764)가 1714년 옮겨 지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송요화의 부인 호연재 김씨(1681~1722)는 17~18세기 여류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한시 134수를 남겼다.

이 고택은 조선 중기 대전지역의 살림집을 이해할 수 있는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충청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 사랑채와 작은 사랑채를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큰사랑채는 양통집 구조이다. 대청을 한쪽에 두는 방식이나 안채의 마루방과 킷마루 등을 전면뿐만 아니라 사방에 다양한 크기로 배치하는 양식은 지역적 특색을 나타낸다.

큰집 격인 동춘당 고택과 같이 송준길 가문으로서 호서지역 명문가 후손 집안으로의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비교적 조선 중기의 원형이 잘 남아 있다. 또한, 대전지역에서는 살림집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적 요소를 알 수 있는 희소성도 있다.

문화재청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대전 동춘당 고택」과 「대전 소대현과 호연재」는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전 소대현과 호연재」(현 대전시 민속문화재 제2호「송영역 가옥」)와 같이 지정 당시 소유자 이름으로 돼있는 문화재 명칭은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아 개설했다.

박봉관기자



논산시 초여름밤 '국악'에 취하다

창작판소리 계백가 등 '그랬슈콘서트' 만석 기록 행진

'그랬슈콘서트에 소녀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충남문화재단은 지난달 30일 논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스타 박애리 등이 출연한 가운데막이 오른 그랬슈콘서트 논산 공연에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 등 다양한 시민들이 관람해 577석을 가득 메우며 만석 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최초로 계백과 황산별 전투를 창작판소리로 풀어낸 첫 번째 마당으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특히 빠른 장단에 웅장하고 씩씩한 호령조 부분은 기존 적벽가에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북 하나로 관객의 마음을 쥐락펴락 하며 공연을 이끌어 갔던 유인상(산군 민족음악원 악장)은 "실현 정신으로 가득찬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계백가를 창작했다. 특히 작창을 한 박인혜(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의 사설에 깊은 영감을 받았으

며 원완칠(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신현석(바이날로그 동인)과 함께 계백가를 창작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황산별 전투에 흠뻑 취해 있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그랬슈콘서트를 통해 만난 네 명의 젊은 연주자들은 지난 당진공연에서 심훈 선생의 '그날이 오면'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색으로 풀어내 호평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어 둘째 마당에서 충남의 대표 예인 심화정 명무의 손녀딸이자 충남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인 이애리의 섬세하고 절제된 발림이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달했다. 특히 이수자인 서은희와 함께 쌍승무로 무대를 꾸며 승무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광대놀이 때이루는 막 중간 중간 해학과 풍자를 통한 이야기로 공연을 이끌어 나가 관객들에게 우리 연희의 신명을 여

실히 보여줬다.

마지막 넷째 마당에서는 소리꾼임과 동시에 방송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악인 박애리의 무대가 펼쳐져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충족시켰다. 박애리는 올해 발매한 자신의 싱글앨범에 수록된 속대머리와 밀양아리랑 등을 열창했으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KBS를후의 명곡에서 열창한 '공방의 이별' 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렇듯 그랬슈콘서트를 통해 만들어진 충남의 지역색이 짙은 창작 국악을 더욱 발전시켜 충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그랬슈 콘서트는 당진, 부여, 논산에 이어 9월 28일 저녁 7시 홍성 충남도청문화회관, 11월 12일 저녁 7시 보령 문화예술회관 등 5차례 무대가 선다.

김정환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hite PALE LAGER Bottom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CHEERS! KOREA

행복도시 한옥마을 부지 공급

평균 3.3㎡ 당 약 220만원... 일반주택대비 낮은 토지 가격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최초로 한옥마을 부지가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6월 30일(목) 행복도시 1-1생활권(세종시 고운동) 고운플공원 디(D)10구역 단독주택단지에 한옥마을 42필지를 공급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42필지 중 15필지는 개인건축 수요에 맞춰

개별 필지로 분양하는 획지(건축부지)로서 구획된 한 획지형으로, 27필지는 동호회, 가족, 친구 등 소그룹, 한옥 건축업체 수요 등에 맞춰 3~8개의 획지형을 묶어 공급하는 집합체(플러스터)형으로 공급되며, 추첨방식이 적용된다.

개별필지 면적은 약 270~330㎡이며, 공급가격은 3.3㎡당 약 220만~240만 원 수준으로 한옥 건축비 등을 감안해 일반 단독주택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됐

다.

한옥 건축 지원금(최대 3,000만원)을 받는 경우 토지가격과 건축비를 합해 약 5억 원(건축비 3.3㎡당 약 900만원, 연면적 99㎡ 기준) 내에서 건축할 수 있어 도시 내 일만단독주택지와 비교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행복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입법에 고안에 따르면 세종시

내에 한옥을 신축하는 사람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약일정은 오는 8월 24일(수)~25일(목)까지 접수한 뒤 8월 26일(금) 발표, 8월 31일(수)~9월 1일(목) 계약체결이다.

필지별 세부내역과 청약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정보시스템(<http://buy.lh.or.kr>) '해당 매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기존의 다른 한옥마을들과 달리 관광자원이 아닌 새로운 도시 주거문화로서 마을 단위의 한옥단지로 계획되었다.

대상부지는 1-1생활권(세종시 고운동) 고운플공원을 배후에 두고 있어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형상 도로에 비해 약 6m 가량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완만한 경사지로 조망과 정온성(일정한 온도조건에서 생육을 하는 성질이 우수하다).

주변으로 온빛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상업시설, 세종시립도서관이 가까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이다.

단지는 어귀길, 안길, 셋길, 골목길 등 크고 작은 길들로 엮인 전통적인 마을길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의 블록으로 배치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옥마을과 조화된 전통조경, 포장 등을 적용해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한옥마을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개별 한옥들은 한식기와, 담장,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미(美)를 살리면서도 냉난방, 단열 성능을 높인 새로운 한옥 형태로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서정열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문화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새로운 도시 주거유형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옥마을이 행복도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단지조성 과정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 기자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추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김석환 홍성군수 출범 2년 군정성과 발표



김석환 홍성군수는 1일 민선6기 출범 2년을 맞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정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힐찬도약, 희망홍성이라는 민선6기 군정 목표로 내건 김 군수는 “지난 2년 동안 신도시와의 원도심 상생발전과 동반성장 추진 등 8대 과제, 62개 공약사업 실현에 군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보건소 및 읍사무소 건립 추진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홍성역세권개발, 장항선 복선 전철화사업,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김 군수는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 지정과 여성친화도시 선정,

서해선 복선전철 가공식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날로 늘어나는 주민 욕구와 정부 시책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며 주민이 공감하는 홍성군정 구현을 위해 공직사회를 유능하고 활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시켜왔다”고 자평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남달랐다가 이어온 조성사업 등 109건이 선정되었고 지방행정 평가에서도 84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행정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옥계·옥암지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구인 내남, 옥계, 신진 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인 용암, 신진 지역을 정비했으며, 방범용 CCTV를 30개소 77대를 설치 및 교체하는 등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

섰다.

내포신도시 내 주민복지지원센터 개소, 장애인체육관 건립 추진,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산모 산후조리 비용 확대 지원,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능반 운영,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와 위생안전나선치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홍성 건설에도 앞장서 왔다.

군은 디젤발전 경비 8000만 원을 절감하고 죽도 내 폐교를 활용한 클린 캠핑장을 조성하는 죽도 신재생에너지 지원선 구축사업을 완료했으며, 홍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월계천, 용봉천, 대관천 생태하천 정비, 축사 3無(약취·해충·살충제) 환경 조성 등을 전개해 왔다.

군은 앞으로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고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이 완료되면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 천년 홍주의 유구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마을과 농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증대 향상을 통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김 군수는 “민선6기 절반이제는 ‘힐찬도약’을 위한 발판을 견고히 다져왔다면 후반기 2년은 ‘희망홍성’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홍주천년 맞이 행사와 시승객 준비를 착실히 하여 후세에 물려줄 홍성을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최진우 기자

내에 한옥을 신축하는 사람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약일정은 오는 8월 24일(수)~25일(목)까지 접수한 뒤 8월 26일(금) 발표, 8월 31일(수)~9월 1일(목) 계약체결이다.

필지별 세부내역과 청약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정보시스템(<http://buy.lh.or.kr>) '해당 매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기존의 다른 한옥마을들과 달리 관광자원이 아닌 새로운 도시 주거문화로서 마을 단위의 한옥단지로 계획되었다.

대상부지는 1-1생활권(세종시 고운동) 고운플공원을 배후에 두고 있어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형상 도로에 비해 약 6m 가량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완만한 경사지로 조망과 정온성(일정한 온도조건에서 생육을 하는 성질이 우수하다).

주변으로 온빛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상업시설, 세종시립도서관이 가까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이다.

단지는 어귀길, 안길, 셋길, 골목길 등 크고 작은 길들로 엮인 전통적인 마을길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의 블록으로 배치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옥마을과 조화된 전통조경, 포장 등을 적용해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한옥마을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개별 한옥들은 한식기와, 담장,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미(美)를 살리면서도 냉난방, 단열 성능을 높인 새로운 한옥 형태로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서정열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문화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새로운 도시 주거유형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옥마을이 행복도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단지조성 과정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 기자



‘해뜨는 서산’ 미래 열어갈 기반 마련

이완섭 시장 취임 2주년

이완섭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엔 성공한다는 초부득삼(初不得三)과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신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 2년이었다고 이어갔다.

한중 FTA발효 및 세계경제의 지속적 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외부 요인이 있었지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산의 미래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던 2년이었던”고 자평했다.

“해뜨는 서산”으로 순조롭게 향해온 서산호의 선장인 이완섭 서산시장의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그간 서산시민의 굽직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서산발전을 더욱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성과로 서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총괄했다.

서산을 대중국무역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고 국가적 유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서산 대산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2005년, 200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시장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기도 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중앙부처, 정당대표 등에게 친필건의문을 보내는 등 불굴의 의지로 노력한 결과 서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첫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통과됐다. 이와 함께 서산비행장 민항

개발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으며 지난해에는 사전 타당성 용역 2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사통팔달 교통체계 기반이 구축돼 서산시가 환황해권 국제물류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서산 대신항은 작년에 전국 31개 무역항 중 6번째로 많은 화물을 처리했고 컨테이너 정기항로도 4개나 추가 개설된 9개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은 작년에 10만4천TEU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작년 대비 20%가 증가한 53543TEU를 기록해 올해 말이면 11만TEU를 넘어서는 등 고성장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35개 기업을 유치했고 올해 목표치인 20개사를 초과 달성했고 “오토벨리, 인더스트리, 테크노벨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96%에 달하는 평균 분양율과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조성의 본격화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산 방문 시 해미읍성에만 14,000명이 운집하고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에서도 제(제)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 등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도 큰 성과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전장참전 유공지에 전국 최고 지원액인 월 20만원씩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확

충 및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민 복지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을 서산이 환황해권의 중핵도시로 대도약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미래 서산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을 석유화학 관련 법률과 제도 마련으로 꼽았다. 서산 대신석유화학단지는 국가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서산 대신석유화학단지는 지난해 4조원이 넘는 국세를 납부했지만 지방세는 27억원으로 0.6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여수시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정치인과의 협력하는 등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제 반환점을 막 돌았을 뿐 아직 ‘해뜨는 서산’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끈을 고쳐 매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오 늘보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매력적인 서산을 만들겠다.”며 “17만4천여 서산시민들도 화합된 뜻과 저력을 모아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daejeontoday.com

같은 마음의 에너지 절약이 모두의 미래를 밝힙니다

매일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재난은 막고 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지키고

기업과 개인 모두 효율성 실현으로 에너지 절약의 대가

실내조명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낭비는 줄이기

도시지역을 순채널 에너지로 효율을 높이기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가뭄은 내리기

빈병 보증금 제도 눈에 확 띄게 '준비 착착'

지난 1일부터 보증금 제품 재사용 표시 도입 · 신고보상제 시행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 등 관련 제품에 보증금 여부와 금액 정보 글자를 18mm 이상의 크기로 키운 재사용 표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주병, 맥주병 등의 제품 라벨에 작은 글자로 표시되었던 빈병(공병) 환할 설명은 7월 1일부터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초록색 병모양의 심볼마크와 금액으로 크게 표시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빈병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경우 5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빈병기 신고보상제도 시행한다.

환경부는 빈병기 신고보상제의 악용 예방과 함께 영세 소매점 등이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도·소매업 관련 단체를 통해 홍보물·자료집을 배포했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소매점에 대한 현장계도와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제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해 주기 때문에 깨진 병이나 찌꺼기, 담배꽂이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받기가 어려워 소비자는 기금적 깨끗한 상태로 빈병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반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소매점의 보관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소매점에서 마대자루, 종이 박스 등으로 보관하면서 발생가능한 병의 훼손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보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 21만개를 보급했고, 수요가 많은 소매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주

거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도 종이 박스 대신 플라스틱 박스를 통한 주문과 판매의 확대에 동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를 통해 도매상 등이 빈병을 자주 회수하지 않아 보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매점을 인근 도매상·제조사 등과 연계 지원하는 회수지원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직접 방문 수거하는 사업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연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가 쉽게 반환하도록 작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인회수기도 연말까지 100여대로 확대된다.

무인회수기는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편리하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여 대형마트를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재사용품 분리수거장, 주민자치센터 등 적정 장소를 조사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재사용 표시나 신고보상제는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비자와 도·소매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빈병 보증금을 돌려주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던 보증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일 빈병 제조업체와 도·소매업계에서는 기간 작은 금액의 취급수수료를 도·소매점이 나눠 갖는 구조로 인해 소매점까지 제대로 취급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이후 동결되었던 취급수수료를 소주병 기준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결과, 소매점의 빈병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소주 10원, 맥주 11원으로 명시했고, 6월 15일부터 인상된 취급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대전역-정신건강증진센터 MOU 체결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대전역(역장 한성덕/가운데)은 지난달 30일 대전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부센터장 박인아/오른쪽), 대전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이선우/왼쪽)와 직원 정신건강 관리를 통한 안심일터 구현을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Global Gallery 오픈식

코녕정밀소제주가 후원하는 Global Gallery가 6월 30일 시민문화복지센터 4층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삼현)에 오픈했다. 글로벌갤러리는 아산시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코녕정밀소제주에서 1,200만원을 후원하고 사회봉사공모금회 등에서 지원하여 설치됐다.

한편, 글로벌갤러리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체험형 수업을 제공하고 다문화인식개선 강사단을 각 지역 어린이집과 학교, 경로당에 파견하여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에 활용되며, 10인 이상 사전 접수 시 센터에서의 직접 체험도 가능하다.

아산=리량주기자

여름 환전 · 해외송금 페스티벌

NH농협은행(대전영업본부장 안병서)은 여름방학, 휴가 시즌을 맞아 최대 70%의 우대환율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16년 여름 환전·해외송금 페스티벌'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장구에서 환전하는 고객은 최대 70%의 우대환율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요 통화인 USD, JPY, EUR 외의 통화를 환전하는 고객도 기존 우대환율을 받을 수 있다.

해외로 송금하는 고객은 통화 구분없이 기본 30%의 우대환율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유학경비나 해외체제비를 송금하기 위해 거래의국환은행 신규 지정 후 송금하는 고객은 20%추가된 50%의 우대환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건당 USD 300불 이상을 거래하는 고객은 NH기프트카드 100만원, Apple New MacBook, 5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 스타벅스 커피교환권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과의 제휴를 통한 혜택도 있다. 장구에서 환전하는 모든 개인고객은 신세계면세점 선불카드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환전 시 농협은행에서 받은 교환권과 당일 신세계면세점 50% 이상 구매영수증을 지참하고 멤버십에 가입하면 1만원권의 선불카드도 교환할 수 있다. 대상점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부산점, 인천공항점이며 선불카드 지급처는 정별로 상이다.

공주알밤 특화사업 본격 '착수'

18년까지 50억 원을 투입 · 특화사업 추진으로 공주밤 새로운 활로 개척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침체되어가는 밤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공주 밤의 소비촉진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6차산업화 지구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단 구성과 사무국 직원채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 전략적 홍보마케팅, 신규시장 개척,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경상보조 사업과 공주 밤의 가공, 유통, 홍보·판매 등 6차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자본보조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산림청으로부터 인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관내 밤생산 법인을 대상으로 자체 공모사업을 실시, 공주시산림조합을 사업지원 법인체로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공주 밤의 유통, 가공, 체험, 홍보·판매 활동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관련 업

계의 업무협약을 통해 6차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체험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선6기 오시덕 시장의 공약사항인 밤연구소 설립사업도 지금까지 연구소 시설·장비 구축과 연구소 운영인력 확보 등 준비단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주 밤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태 농촌진흥과장은 "그동안 1차산업 위주의 공주 밤 산업을 앞으로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6차 산업을 실현, 공주 밤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삼범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집중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집중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법 위반 우려가 높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현장의 원수급인과 그 소속 하수급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근로자의 핵심근로조건과 퇴직공제가입 및 부급납부실태 등의 집중점검을 통하여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건설근로자의 권리보호를

aT 농식품유통교육원 미래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열려

글로벌 유통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2016년도 상반기 농식품유통교육 자문위원회

2016. 6. 30(목) aT 농식품유통교육원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조혜영)은 지난달 30일 상반기 교육사업 현황 점검 및 교육원 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혜영 원장은 "그동안에는 매년 말 다음 해 교육계획 수립 시에만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자문위원회를 정례화해 외부와의 소통을 늘리고 각계 전문

청양군 목면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 홍보

청양군 목면(면장 성삼현)은 최근 원예시설농가의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원예시설보험이 보장하는 재해는 풍수해, 폭설, 조수해(뱃재), 화재(특약)이다. 보험가입 절차는 농지원부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농협에서 원예단 지원장을 작성하면 심사 후 기준가액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Global Gallery 오픈식

청양=정삼범기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Global Gallery 오픈식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대로 26-26 대우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2016년도 상반기 농식품유통교육 자문위원회

2016. 6. 30(목) aT 농식품유통교육원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조혜영)은 지난달 30일 상반기 교육사업 현황 점검 및 교육원 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혜영 원장은 "그동안에는 매년 말 다음 해 교육계획 수립 시에만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자문위원회를 정례화해 외부와의 소통을 늘리고 각계 전문

승병배기자

대전지역 지난 10년간 농작물 생산량 변화

작물	2006년	2015년	변화율
마늘	50톤	211톤	322% 증가
양파	45톤	57톤	26.7% 증가

출처 : 충청남도청 기획과,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 지난 10년간 대전의 마늘·양파 생산량 변화

- 마늘은 2006년 50톤에서 2015년 211톤으로 322% 증가
- 양파는 2006년 45톤에서 2015년 57톤으로 26.7% 증가

승병배기자

SNS 운영, 취업 도움될까? 취업생 45% “그렇다”

<인크루트>조사 결과... ‘취업 대비 위한 최신 트렌드와 상식 등 정보 획득’ 위해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유명인이 실언을 할 때마다 ‘시간(S) 낭비(N) 서비스(S)’의 약자라는 우스갯소리가 따라 붙는다.

한편으로 SNS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작년 6월 자사 회원 6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준비생 SNS이용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의 45%가 취업을 위해 SNS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취업을 위해 SNS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는 ‘취업 대비를 위한 최신 트렌드와 상식 등 정보 획득(24%)’

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양질의 채용정보를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24%)’가 2위의 근소한 차이로 2위, ‘자기 PR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서(11%)’가 3위로 각각 조사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SNS 계정이 있느냐’는 물음에 70.4%는 ‘그렇다’고 답했고, SNS 채널(중복선택) 중에는 ‘페이스북’이 26%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로 선택되었다. 그 밖의 SNS 채널로는 카카오톡(24%), 카카오톡스토리(12%), 밴드(9%) 등이 뒤를 이었다.

선택한 SNS를 사용하는 이유(중복선택)로는 37%가 ‘사람들과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20%)’, ‘최신 소식,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18%)’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실제 취업을 위해 SNS 계정을 생성 및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1%로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 주로 했던 활동은 ‘관심 직무 관련 정보 업로드 및 공유(24%)’, ‘취업포털에서 운영하는 SNS에 좋아요, 친구추가 등을 통해 채용소식 안내 받기(22%)’, ‘관심 기업 관련 정보 업로드 및 공유(22%)’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SNS를 운영하는 응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무(중복선택)로는 ‘경영·인사·총무·사무(13%)’가 가장 높았으며, ‘마케팅·광고·홍보·조사(10%)’, ‘인터넷·IT·통신·모바일·게임(9%)’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수많은 온라인 채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SNS”라며, “구직자의 인맥이나 정보 공유력을 일정 부분 가늠할 수 있어 인사담당자들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는 설문 소감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세종시교육청-한국개발연구원(KDI)

손잡고 자유학기제 확산 본격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이라 세종시교육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손잡고 자유학기제의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세종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로 촉발된 학생참여중심 교수학습 방법 및 진로탐색활동 등의 성과를 일반학기와 연계해 넘어 고등학교까지 확산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담은 세종형 자유학기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교육부의 ‘2016년 자유학기제 우수과제 추진 교육청’으로 세종시가 지정됨에 따라 이러한 세종형 자유학기제의 확산 동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시교육청과 KDI 공동으로 주관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 31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자유

학기제의 확산’ 연수가 KDI에서 열려 양 기관이 자유학기제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다.

지난해에는 KDI가 관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원활동으로 경제 프로젝트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김희삼 교수(GIST)의 ‘자유학기제와 창의인재 양성 방안’, 광영순 연구위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미래학과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강의와 한승희 PDEBS의 ‘수업 혁신과 프로젝트학습의 힘’이라는 특강, 분원토의 등이 진행돼 혁신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자유학기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소감이 있었다.

세종=이정복기자



당진 탐동초교, 캡스키우트 올림도·독도 탐방 당진 탐동초등학교교장 한동현(는)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캡스키우트 대원 16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올림도·독도 탐방 활동을 실시했다.

대전, 고등학교 교실 LED조명으로 교체

2016년 여름방학 이용 교체... 16억1900만원 투입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6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고등학교 공·사립교 40개교에 16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학교 교실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한다.

교실 LED조명 교체 사업은 대전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우수교육청 선정에 따라 받은 특별교부금 일부를 학교에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업활동 시간이 가장 많은

고등학교 보통교실은 100% 완료되어 친환경 조명 빛으로 인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 박진규 시설과장은 “우리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되어 이러한 혜택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 우수교육청으로 평가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논산 상월초, 노인정 봉사활동 실시

상월초등학교(교장 노종우) 1~3학년 학생과 병설유치원 학생 총 35명은 지난 30일(목) 대한노인회 상월면 분회 행복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역 경로당인 행복로당과 자매결연을 맺은 상월초는 장기자랑, 효도활동, 청소봉사 등을 하는 노인정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 날 경로당을 방문한 상월초 학생

들은 먼저 어르신들께 공경의 의미로 절을 올린 후 도안마를 해드렸다.

곧 이어 학생들이 바이올린과 벨로디언, 실로폰 연주, 무용 등 열심히 연습해 온 장기자랑을 보여주며 어르신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즐거워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이 준비한 선물을 노인회에 전달해 드리며 봉사활동은 마무리 됐다.

한대수기자



아산용연초, 알로아! 감성 나눔 마당

돌봄교실 아이들이 그간 꾸준히 실력 쌓아 온 우쿨렐레 연주

아산용연초등학교교장 김진식은 지난달 29일, 교정의 작은 마당에서 깜짝 공연을 하였다. 돌봄교실 아이들이 그간 꾸준히 실력을 쌓아 온 우쿨렐레 연주를 감상 시간을 이용하여 깜짝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돌봄교실에서는 학생들의 특기 및 창의성 신장과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요일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감성 채

움 음악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돌봄 학생들은 오카리나 및 우쿨렐레 연주를 배우면서 고운인성을 키우고 있다.

열린 마당 공연에는 용연 교육가족들이 자유롭게 마당으로 모여 우쿨렐레 연주에 맞추어 다 함께 노래하는 분위기로 되어 용연 교육 가족이 음악과 어울려 하나됨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교육청,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앞장서

2016 전국 교육과정 권역별(제2권역) 총론 핵심교원 워크숍 개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달 30일부터 1일까지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에서 교육부가 주최하고 충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16 전국 교육과정 권역별(제2권역) 총론 핵심교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4개 권역중 제2권역에 해당하는 충남, 대전, 경기, 충북지역 초·중·고·특수학교 교장·수석교사·교사 250명, 장학사 36명,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 등 총 3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늦은 밤까지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1일차에 ‘2015 개정 교

육과정의 개발 방향 이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이해, 교육과정(수업 및 평가, 분인별 활동, 교육과정 정책을 안내하고, 2일차인 1일에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 ‘선생님이 좋아요’ 공연, 분과 토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는 “교육의 방향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서부평생학습관 ‘동화마술특강’ 운영

매주 금요일 5회차 걸쳐... 동화뮤지컬 공연봉사자 학부모 16명 대상



서부평생학습관(관장 김광희)은 동화뮤지컬 공연봉사자 학부모 16명을 대상으로 1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5회차에 걸쳐 <동화마술특강>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동화마술특강> 5회차를 수료하면 마술동화연구지도사 3급 자격 취득이 가능해 회원들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습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즐거움이 있는 세상으로 어린이들을 안내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 회원들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나누는 기쁨을 향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강 관련 궁금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헌정보부(☎660-8330)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김정현기자

공주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운영·예방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은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상설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특수학급을 방문, 정기·특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설모니터단은 공주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부장, W센터 전문상담사,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공주장애인부모회장, 공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감, 공주정명학교 수석교사,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성교육상담사 등 모

두 11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40개교의 유·초·중·고 특수학급(미설치교 포함) 및 특수학교, 더불어 특수교육대상학생 거주 시설 등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았다.

학교점검내용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여부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 실시현황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침해 관련사례 ▲학생면담 등을 모니터링하며 인권을 침해받은 장애학생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교육지원청, 청렴문화 확산 위한 청렴콘서트 개최

지난1일 오전9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소리꾼김영희와 함께하는 맑은가락! 우리소리 열썬! 청렴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도순 보령교육장 “정의사회와 공직자 청렴” 강의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제 1회의실에서 전 직원 및 관내 도서관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은 ‘정의사회와 공직자 청렴’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우리/동네

희망찬 서천 미래 군민과 소통으로 만들어

이장단 350여명과 함께 주요 사업에 대한 소통의 장 열어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군민과의 소통의 장을 지난 1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이장과 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박래 군수의 16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추진 방향

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FTA 및 농어업 환경변화 대응 사업, 봉선저수지 복합개발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은 물론, 원광대학교병원 부속 서천병원 건립,

군청사 신축과 같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심이 높은 사업에 대한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장들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이 지역 발전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 건의하였으며, 수질과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

경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였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금 서천군은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모든 군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서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야시장 이색상단 성공 예감

부여군, 특색음식 차별화, 오감행복 만끽

건전한 밤 문화를 선도해 나갈 부여 백마강 달밤야시장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한다. 일명 야시장은, 지난 1일 부여5일 전통시장 중앙광장에서 이용우 군수를 비롯하여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처음부터 분위기는 성공에 걸맞았다. 야시장을 찾은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우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 청년창업자들이 주도한 야시장이어서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어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침체된 부여야시장이 백마강 달밤 야시장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존 상인들의 반응도 고무적이고 청년상인들의 관계도 우호적이다.

수제 중심의 특화상단도 매우 이색적이다.

특히, 부여를 대표하는 연과 부여8미를 활용한 음식이 눈에 띈다.

부여군 공남지 서동선화 워터슬라이드 개장



국내 최초의 인공연못 공남지가 다양한 놀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됐다.

부여군은 지난 1일 서동공원 서문주차장 인근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인 '서동선화 워터슬라이드 풀장'을 개장했다.

오는 8일부터 제14회 부여서동연꽃축제가 개최되는 공남지에서 운영되는 '서동선화 워터슬라이드'는 3m 높이의 에어슬라이드 구조물 2기와 일시에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 풀장 3기 등을 갖췄다.

'서동선화 워터슬라이드'는 개별 이용요금 1일 이용권 5천 원이

며, 탈의실과 화장실 등 기본요소와 더불어 먹거리 및 휴게소 등 간단한 편의시설도 함께 운영된다.

'서동선화 워터슬라이드'는 수심 70~60cm 사이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야외 물놀이 시설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가장 무더운 시기에 부여읍 인근 물놀이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연꽃 등 관광요소와 결합했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놀이시설은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 운영되며, 추후 이용객이 증가하면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부여=이정복기자

서천군 잇따른 스포츠마케팅 '대박'

전국 · 도 단위 체육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선수단 및 임원 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9회 충남협회장배 태권도 대회 겸 전국체전 충남대표선발 예선전을 시작한다.

서천군은 3일까지 열리는 충남협회장배 태권도 대회 겸 전국체전 충남대표선발 예선전을 시작으로 오는 7월 8~9일 전국체전 최종 선발대회, 8월 5~10일 제2회충고역도선수권대회 및 제18회 아시아유소년 선수권대회 선발전, 8월 27~28일 대전MBC시장배 태권도대회 등 총 5개의 대규

모 체육행사를 연이어 개최하게 된다.

대회를 치루는 기간 중 선수단 및 임원과 가족 등이 서천군을 방문해 숙박, 식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박래 지체행정과장은 "현재 예정된 대회 이외에도 10월 전국체전 당구와 세팍타크로 종목이 개최되며, 도지사배 당구대회 또한 우리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이외에 개최지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대회도 적극 유치해 스포츠마케팅



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천군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김태성기자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열려

논산시, 모유의 우수성 홍보 · 모유 먹이기 분위기 확산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6월 30일 보건소 건강홀에서 모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모유 먹이기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제10회 논산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발대회에 참가한 아기들은 논산시에 거주하며 모유를 먹는 생후 4~6개월의 아기들로 총 24명의 아기가 출전했다.

건강한 아기 선발은 의료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성장, 발달, 모자관계, 식이관계 등 총 5개 항목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을 각각 선발했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윤재인(여, 취암동) ▲우수아에는 류하은(여, 연무읍), 소다은(여, 취암동) ▲장려아 전지호(남, 취암동), 최윤지(여, 노성면), 임보영(여, 취암동) 아기 등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 중 최우수아 1명 및 우수아 2명은 7월 7일 열리는 제15회 충청남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출전 자격을 갖는다.

논산=김태성기자

시민중심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마련

천안문화재단,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공모 선정

(재)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규)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생활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16문화가 있는 날'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천안문화재단은 1, 2차 심사

지역 주민과 생활문화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자생적인 문화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25개 단체가 응모했다.

천안문화재단은 1, 2차 심사

를 거치는 동안 활발한 동호회 활동에 비해 사회적 확산 기반이 취약한 현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추진 필요성을 피력하여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천안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교류와 활동장려가 이루어져 지역 내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개최될 '2016 천안생활문화페스티벌'은 천안시 및 인근 지역의 생활문화동호회 중심으로 한 공연, 전시, 체험(Art Work, 버스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교류 확대 방안을 통하여 점차 천안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천안=김정환기자

응급처치로 귀중한 생명을 살린 시민 표창

계룡시, 지난달 30일 응급구조 유공자 6명 표창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달 30일 집무실에서 응급처치로 귀중한 생명을 살린 응급구조 유공자 6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고 이들의 선행에 감사를 표하며 격려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업무면 성원아파트 김정승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은 지난 달 10일 노후 상수도관 교체작업 중 맨홀에 쓰러져 의식불명인 작업자를 침착하고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해 훈훈한 감동을 전한 바 있다.

또 강동희 성원아파트 동대표는 평소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문화 실천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공헌하여 표창을 받았다.

계룡=주선웅기자

이와 함께 업무면 주민자치위원회 조창묵 씨는 지난달 22일 유동리 일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생명이 위독한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조하여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어 표창을 받았다.

최홍묵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짐작성을 잃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을 구한 유공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응급 시 신속히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침착한 응급처치로 귀중한 인명을 구조한 시민들의 생명사랑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펼쳐 시민 누구나 골든타입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계룡=주선웅기자

통정

간담회



구본영 천안시장= 4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하고 오후 1시 30분 북면 연촌1리 유기농채소단지를 방문, 체험행사도 간담회를 갖는다.

준공식



황명선 논산시장= 4일 오전 11시 양지 2농공단지에서 개최되는 알루코그룹 논산첨단스마트단지 준공식에 참석.

전달식



노박래 서천군수= 4일 오전 8시 30분 대회의실에서 7월 중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천군 착한가게 현판전달식에 참석.

행복공감콘서트



이용우 부여군수= 4일 오전 8시 40분 부여문화회 소강당에서 열리는 행복공감콘서트에 참석.



논산시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운영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15개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협연예방 및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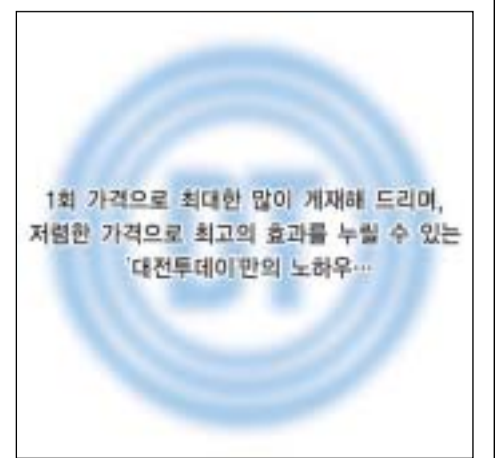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는 학기 초 알레르기 질환 유발요인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 진단과 예방 관리를 돕기 위한 학교중심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건강도우미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전문인력이 대상 학교로 직접 찾아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들의 흥미유발과 정서발달에 도움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금연지원서비스사업과 연계해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흡연의 위해성 예방교육과 일산화탄소 측정 및 소변 니코틴 정량검사 등 간접흡연 검사를 실시해 보호자의 금연도 함께 유도한다.

하반기에는 전문 극단을 초청해 간접흡연 · 아토피천식 예방 인형극 공연과 운동프로그램 및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논산=김태성기자



동정

월요간부회의 주재



오시덕 공주시장= 4일 오전 8시 40분 중회의실에서 월요간부회의 주재.

월간 업무계획 보고



김동일 보령시장= 4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월간 업무계획 보고, 오후 2시 청주대수련원에서 열리는 대전해수욕장 운영요원 합동전절교육 참석.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식



이완섭 서산시장= 4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식에 참석, 오후 5시 더 웨딩홀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우수단체 선수지도자 시상식에 참석.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



박동철 금산군수= 4일 오후 5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에 참석.

민선6기 2년 '금산군정' 결산

인삼약초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미래 혁신 근거·비전 제시 평가

민선6기 2년의 금산군정이 금산인삼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도전,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 준비 박차, 종합체육관·가족통합지원센터 준공 등 금산의 미래를 확산할 수 있는 근거와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동북아농업유산협의의 회(ERAFHS) 국제컨퍼런스 유치, 금산인삼 수출 2000만 달러 달성, 금산인삼축제 피너클 어워드 7회 연속 수상, 추부곶길 4년 연속 400억 원대 매출 등 전환점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군정에 대한 신뢰를 쌓았다.

군정성과 중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인삼약초 분야로 금산인삼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제5호 지정과 제3회 동북아농업유산협의의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 유산 등재가 이뤄질 경우 금산은 인삼종주지로서의 위상 및 대표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며, 유·무형의 인삼발전 잠재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또 총 10개국 50개소의 해외 금매장 개설을 교두보로 2121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뒀으며,

EU·호주·미국 등 5개국 8회에 이르는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420만 달러의 계약 및 선 수출을 이뤄냈다.

특히 지난해에 금산·추부곶길 특구가 지정되면서 깃발특구에 2019년까지 총 3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73억 원의 경제효과와 446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최초의 '귀농교육센터'는 체류형 주택 17동, 교육관 1동, 공동 실습소 등 현재 18세대 37명이 입주해 있는 상태며, 그동안 11세대 28명이 이곳을 수료한 뒤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 있다.

제35회 금산인삼축제(87만명, 910억원) 피나클 어워드 역대 최다수상(7회연속),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금산역사문화박물관 및 작은 영화관 건립 추진 등 문화관광 인프라 기반도 크게 강화했다.

시는 이번에 조성된 학교숲이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과 환경 친화적인 인성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환 도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녹지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녹색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금산=송광우 기자

학교숲 조성 통한 녹색공간 제공

공주시, 수목·초화류 등 식재... 자연학습의 기회 제공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녹지 환경이 열악한 관내 학교에 학교 숲 조성을 완료했다.

시는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 효포초등학교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경천중학교 등 3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녹색

의 공간을 제공했다. 학교숲에는 수목과 초화류들을 종류별로 식재하고 표찰을 달아 관찰하는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한편, 야외무대, 그늘의자 등 편의시설과 텃밭 등을 만들어 다양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6 시민 정보화교육 인기

서산시, 컴퓨터활용기초·한글 2010기초·엑셀기초 등 실시

서산시가 실시 중인 '2016 시민 정보화교육'이 시민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2층시에 위치한 정보화교육장에서 2016 시민 정보화교육을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설과목은 ▲컴퓨터활용기초 ▲한글 2010기초 ▲엑셀기초 ▲파워포인트&프레지 ▲블로그 만들기 등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도민IT경진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한 과목 등 개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라 인기가 높다.

또한 스마트폰활용기초와 같이 생활에 밀접한 과목은 물론 다문화 가정등도 참여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했다.

서산=김정환기자

특히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활용한 교육과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마을회관, 학교를 이용한 이동 정보화교육은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만후 서산시 공보전산담당관은 "앞으로 시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는 더욱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민 정보화 교육의 문을 많이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 집수는 매월 초부터 교육시작 일주일 전까지 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산시 공보전산담당관실(☎ 660-2632)로 하면 된다.

제1기 새보령 마을대학 운영

보령시가 주민 주도의 상황식 개발로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수준 높은 강사를 통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며,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의 노하우 공유로 농촌의 전문문화, 자연환경, 도시적 편의이 조화낸 색깔 있는 마을개발을 위해 제1기 새보령 마을대학을 운영한다.

새보령 마을대학은 1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교육장(농민회관 3층) 및 각 회원 마을회관에서 열리고, 마을만들기협의회의 회원마을의 위원장과 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대학은 주민 주도의 상황식 마을만들기 체계 확립을 위해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교육·견학·실습 등 균형감 있는 학습과정,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구성해 각 마을위원장의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교육 첫날인 1일에는 농민회관에서 개강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앞으로 8주간 총남연구원 구자민 박사과 총남사회경제네트워크 최선희 대표이사 및 이혁수 센터장 등 전문가로부터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조직 연대 방안, 마을기업 운영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농산어촌의 미래 성장 동력인 6차산업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주도의 상황식 정착과 마을간 밀착형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생 발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농촌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명품 마을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서산시 동문1동 장마대비 우수맨홀 정비 나서



서산시 동문1동이 본격적인 우기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지회장 김영환)와 낙엽과 토사로 막힌 우수맨홀을 정비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박노수 동문1동장은 "이번 우수맨홀 정비로 침수피해 등의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동문1동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와 지난해 1월 '안전한 동문1동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우리/동네

우리 동네 대피시설이 어디?

공주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 위치정보 안내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비상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전체 민방위 대피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 민방위 대피소 위치정보를 추가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후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비상시 많은 혼란이 초래 될 것을 방지하고자 기존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주소만 안내하던 것 외에 생활정보시스템을 통해 항공영상과 함께 관내 대피소에 대한 위치를 제공해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했다.

민방위 대피소는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대피시설로, 현재 공주시에는 75개소의 대피소가 지정돼 있다.

공주시 토지과 공간정보팀 김천룡 담당은 "시민들이 유사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피소 위치를 알아두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이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를 통해 접속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공주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맛집, 관광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www.fplove.or.kr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월 받고~

315 농지연금지급1 1,160,000
415 농지연금지급2 1,160,000
0515 농지연금지급3 1,160,000
0615 농지연금지급4 1,160,000
0715 농지연금지급5 1,160,000
30815 농지연금지급 1,160,000
30915 농지연금지급 1,160,000
130915 농지연금지급 1,160,000
130915 농지연금지급 1,1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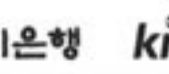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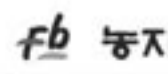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작이나 임대료 인건 추가수익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부부 모두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소유농지 3인㎡ 이하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오늘의 하이라이트

▲좋은사람 (MBC오전 7시50분)



자신이 겪은 일의 배후가 경주(강성미)였음을 알게 된 정인(우희진)은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경주를 찾아야 하고, 지원(현우성)은 그런 정원을 말한다. 한편, 경주는 지원을 찾아와 함께 일하고 하며 자신이 승희(오미희)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데...

▲내 마음의 꽃비 (KBS2 오전 9시)

선이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 연희(임채원)는 정체를 숨긴 채, 서서히 일관(임지은)과 수장(정태태)을 향해 다가가려 한다. 한편 연희가 꽃비(나해령)의 가계라는 것을 알게 된 혜주(정이연)는 미리 알고있...

케이블 명화

▲관상 (OCN 오후 3시10분)

사람의 생김새, 얼굴 모습, 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일, 바로 '관상'이다.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전해지는 관상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가장 활발하게 유행하며 관상학으로 발전했다.

<관상>은 왕의 자리가 위태로운 조선, 얼굴을 통해 앞날을 내다보는 천재 관상가가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들어있소이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 내정. 처남 '평헌', 아들 '진형'과 산속에 칩거하고 있던 그는 관상 보는 기생 '연홍'의 제안으로 한양으로 향하고, 연홍의 기방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는 일을 하게 된다.

용한 관상쟁이로 한양 바다에 소문이 났던 무렵, '내정'은 '김종서'로부터 사헌부를 도와 인재를 등용하라는 명을 받기 공로로 들어가게 되고, '수양대군'이 역모를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는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한다.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1398-8000 스키야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Program listings for various channels including OCN, SBS, YTN, MBC, and Mnet. Includes show titles, times, and brief descriptions.

였음에도 언급하지 않은 선호지은성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어느 날, 연희(정태태)의 빵을 먹은 아이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에 연희(정태태)에 대한 괴소문이 퍼지며 꽃비와 연희(정태태)에 위기에 몰리는데..

▲사랑이 오네요 (SBS 오전 8시30분)



과과제과에 입사하게 되어 기뻐하는 해인. 해인은 첫 출근하고 정훈의 안내를 받으며 상호의 사무실에 들어가 썩썩하게 인사한다. 하지만 상호는 해인을 노려보며 무안을 주고 해인은 방석의 태도에 마음이 좋지 않다. 한편, 민수는 중국에서 전사인 레드벨벳에게 은희(김소희)를 소개하고 은희에게 하라 웨딩샵 디자이너 스카웃 제안을 하는데..

▲천사야 악마 (채널CGV 오후 7시20분)

500년을 기다려온 거대한 복수가 시작된다!

세계 최대의 과학 연구소 'CERN' (유럽 원자핵 공동 연구소)에서 우주 탄생의 재현하는 빅뱅 실험이 진행된다. 물리학자 빅토리아(아에렛)와 동료 실바노는 빅뱅 실험을 통해 강력한 에너지인 반물질 개발에 성공하지만 실바노가 실패당하고 반물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한편, 허버드대 종교학 교수 로버트 랭킨(톰 행크스)은 교황청으로부터...

의문의 사건과 관련된 암호 해독을 의뢰받는다.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교회의식인 '콘클라베'가 진행되기 전, 가장 유력한 4명의 교황 후보가 납치되고 교황청에 일부미나리의 상징인 엠블렘이 나타난 것. 일부미나리는 '지구가 돈다'고 주장해 종교 재판을 받았던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등 18세기 과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과학자들이 모여 결성됐으나 카톨릭 교회의 탄압에 의해 사라진 비밀결사대. 500년만에 부활한 일부미나리는 4명의 교황 후보를 한 시간에 한 명씩 살해하고 마지막에는 CERN에서 탐취한 반물질로 바티칸을 폭파시킬 것이라며 카톨릭 교회를 위협한다.

프로그램

Table of TV program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channels. Lists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서산 학돌초, 졸업기대회 4년 연속 우승 차지

‘서산시 학교스포츠클럽 졸업기대회’... 여자와 남자부 동반



서산 학돌초(교장 정덕택)가 '서산시 학교스포츠클럽 졸업기대회'에서 여자와 남자부 동반으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 남자부 정진교 외 17명, 여자부 정예슬 외 16명이 참가해 긴줄 8차 마라톤 뛰기, 긴줄 4도약 뛰기, 긴 줄 뛰어들어 함께 뛰기 전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굿 와이프’ 공식 포스터 공개... 명품배우 총출동!

국내 최초로 동명의 미드 리메이크... 오는 7월 8일 첫 방송



올 하반기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을 tvN 새 금드라마 '굿 와이프'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다. 최근 전도연의 단독 티저 포스터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가운데, '굿 와이프'를 이끌고 나갈 주역 6인 전도연, 유지태, 윤계상, 김서형, 나나, 이원근이 한 자리에 모인 것.

포스터를 살펴보면 먼저 가정주부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써 나갈 전도연(김혜경 역), 목격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검사 유지태(이태준 역), 세련되고 시크한 매력의 로펌 대표 윤계상(서준원 역)의 3인 1색 카리스마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어 '차도녀'의 끝판왕 모습을 보여줄 로펌 공동 대표 김서형(서명희 역), 국내에서 첫 정식 연기에 도전하는 만능 조사관 나나(김단...)

한빛교육박물관

‘옛 교실 체험학교’ 운영

한빛교육박물관(관장 황선혁)은 7~8월 '문화가 있는 날'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옛 교실 체험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박물관 1960~70년대 옛 교실 체험장을 가족 소통의 장소로 제공하면서 다채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가 있는 날'인 7월 27일(수)과 8월 31일(수) 오후 6시 30년부터 7시 30분까지 각각 1회씩 운영한다. 교육내용은 '가족 행복 천가방 만들기', '한지공예 액자만들기'로 가족이 함께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대상은 유·초 학생을 포함한 가족으로 1회당 25명씩, 총 2회 50명이며, 한 가족당 최대 4인까지 참여 가능하다. 모집은 7월 4일(월)부터 박물관 홈페이지(www.hbmem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참가대상자는 7월 8일(금) 이후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그만 뒀던 아내 김혜경(전도연)이 가정의 생계를 위해 서준원(윤계상)의 로펌 변호사로 복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법정 수사극이다. 전도연, 유지태, 윤계상, 김서형, 나나, 이원근 등이 출연하며 tvN이 선보이는 또 하나의 웰메이드 드라마로 제작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디어 마이 프렌즈' 후속으로 오는 7월 8일 첫 방송된다. 김정환기자

NAVER logo and search prompt: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도심 속 생태 감수성 텃밭체험 프로그램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28개 대상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형식)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일間に 걸쳐 어린이집 28개(60명)를 대상으로 텃밭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매년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비미이프랜드' 텃밭체험농장 보조관리사업에 참여하는 16명의 어르신들이 텃밭을 가꾸어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10가지 이상의 작물을 관찰·학습, 감자게기 체험 등 소소한 체험의 기회로 작물을 직접 만져보고 배우며 생태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송병배기자



세종시교육청 세종마을교사 위촉 및 워크숍 개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일 세종교육연구원에서 학교와 마을을 잇는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할 세종마을교사 30명을 위촉하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전대 이현국 교수, 재학생들과 필리핀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학습 떠나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는 행정학과 이현국 교수와 학생 14명이 글로벌 캠퍼스디자인 수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비공실랑 지역을 방문했다.



충남대 대전지방경찰청, 관학 협약 체결 충남대오덕성 총장과 대전지방경찰청 김덕섭 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은 7월 1일, 충남대학교 본부 2층 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와 대전지방경찰청 간 관학 협약식'을 개최했다.



미당리 '담박골 마을 행복센터' 준공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이장 김영진) 담박골 마을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행복센터'가 지난 1일 준공됐다. 이날 주민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농가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마을의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으로 한바탕 흥잔치를 벌였다.



당진 순성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감자수확 불우이웃도와 순성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회장 황인동, 부녀회장 김재숙)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봉사리 일원에서 수확한 감자 75박스(박스당 10kg)를 기초수급자 66가구와, 남부복지관에 10박스를 전달했다.



새마을지도자노은동협의회 '건강한 장수를 응원합니다' 새마을지도자노은동협의회(회장 김진일) 산하 새마을지도자노은동협의회(회장 노영호)는 노은동협의회회 경료위원으로 노은동 어르신 중 장수사진을 준비하고 싶어 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찍어드리며 건강장수를 응원했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화학사고 대응 업무 협약 체결

“화학사고 Zero! 안전한 일터 조성”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는 지난달 30일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와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사고 초기대응에 취약한 당진화력본부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유관기관인 합동방재센터 간 사고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진화력본부와 유관기관인 합동방재센터(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 유관기관·기업은 협약



에 따라 화학사고 공동 대응·수습과 사고 예방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재난관리지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재난대응훈련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배종수 합동방재센터장은 “화학사고 발생은 예방

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배종수 당진화력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당진화력본부의 위험률 및 유독물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 합동방재센터의 도움을 받아 화학사고 대응 전문가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당진화력본부는 합동방재센터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한국영성대학교, 2년 연속 선정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한국영성대학교(총장 유재원은) 지난 6월 29일 교육부 주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이하 GKS) 수학대학’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6개 전문대학만이 선정된 가운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며 한국어연수 1년, 전문학사과정 2년으로 진행된다.

한국영성대가 2016년 선발한 3명의 정부초청 장학생은 몽골 1명,

키자흐스탄 1명, 키르기스스탄 1명으로 2017년 입학 예정이며, 이들은 학비와 항공료, 생활비 등 각종 혜택과 수학 후 전문 직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유재원 총장은 “우리대학은 방송영상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우수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며 “GKS의 2년 연속 선정은 직업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범기자

서산시 대산읍, 민간단체 자연정화 활동



대산읍(읍장 김세철)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회원 100명과 함께 황금산등산로 및 코끼리바위와 굽골 인근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펼쳤다.

김 읍장은 황금산을 찾는 관광

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다른 관광지에도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산시를 이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한밭대학교, 학생 개인별 수요와 상황 맞춘 실습 위주

말 잘하는 엔지니어 교육 큰 ‘호응’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6월 27~30일까지 창의학습실(N8동 501호)에서 ‘말 잘하는 엔지니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밭대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이종원)가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교육은 한밭대 김혜경교수강의 전담의 강의로 4일간 매일 4시간씩 총 16시간 진행됐으며,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학생 개인별 수요와 상황에 맞춘 실습 위주 교육으로 진행됐다.

▲1일차에는 자신의 말하기 능

력 진단, 발전과 발음, 말하기 불안 해소 ▲2일차에는 1분 말하기, 표현방식과 스타일 찾기, 말하기를 위한 콘텐츠 구성, 비주얼 스피치 ▲3일차에는 공감적 대화 방법, 정보전달을 위한 말하기 기법, 설득력 있는 말하기 ▲4일차에는 논리적인 말하기(면접과 토론), 상호평가하기, 말하기 종합평가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말하기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부터 프로젝트, 연구 결과, 세미나, 학회 발표 등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발표 기술과 발표 자료 구성까지 실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정복기자



코닝정밀소재(주) ‘아름다운 나눔’ 전달

사회헌인 한인센터 운영비 후원금 6백만원 전달식 행사 가져

코닝정밀소재(주)는 지난달 30일, 2016년도 사회헌인 한인센터 조성과정 성과 안정적 정착사업 운영을 위한 사회헌인 한인센터 운영비 후원금 6백만원 전달식 행사를 아산시 복지문화국장실에서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유근봉 복지문화국장, 홍순환 아산시부총합사회복지관 부장, 정금영 회장, 오복순 부녀회장, 코닝정밀소재(주) 김대봉 책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닝정밀소재

(주)의 후원으로 아산시(시장 박기왕)가 사회헌인 한인센터 조성과정에서 일반법 부재로 센터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코닝정밀소재(주)가 지정·후원한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아산시부총합사회복지관이 운영·관리를 함으로써 사회헌인 한인센터 운영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아산=리량주기자

아산소방서, 제17대

김득근 서장 취임



7월 1일 (금)자로 제 17대 충청남도 아산 소방서장으로 김득근 서장이

부임했다. 취임한 김득근 서장은 1987년 제5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중앙소방학교, 충남소방본부, 당진·서산·천안서북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김 서장은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행정업무 및 현장에서 탁월한 지휘통솔 능력을 발휘하는 등 직원들에게 신뢰가 두터운 인물로 정평이 나왔다.

김득근 아산소방서장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아산소방서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직원간 화합과 단결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품격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아산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가족치유캠프 ‘@-것이

알고 싶다!’ 참가자 모집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7월 30일까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자기조절방법을 배우고, 부모자녀 간 소통으로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인터넷 가족치유 캠프 ‘@-것이 알고 싶다!’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오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운영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바로 알기, 의사소통훈련 등의 교육과 가족소개하기, 우리가족 도자기 체험, 인절미 만들기체험, 인터넷 세상 속 가족행복 다지기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활동을 체험하게 된다.

센터는 이를 통해 인터넷 과다사용의 위험성을 깨닫고, 청소년들이 자기조절력을 키우게 하는 한편 부모에게는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사용법을 지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주=정성범기자

인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부이사관 승진(3급)
- ▲ 공공시설건축과장 김준연
- ◇ 서기관 승진(4급)
- ▲ 청장실 최병성
- ▲ 도시특화개발팀 신재욱

■ 충남대학교

- ◇ 서기관(4급)
- ▲ 교무처 교무과장 박기원 ▲ 자연과학대학, 화학대학, 군사학부 행정실장 김남우

※ 충남대학교

인사 본보 홈페이지 참조.

세종·세명라이온스클럽 1·2대 회장 회장 이·취임식 열려



2016년 6월 30일 오후 6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로 70수정웨딩타운에서 클럽 회원 및 내외귀빈의 축하를 받으며 세종·세명 M.J.F 라이온스클럽 1,2대 회장 이·취임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세종·세명 클럽은 M.J.F(Melvin Jones Fellows 100% Club)클럽으로 회원 모두가 L.C.F(국제라이

온스재단 Lions Club International Foundation) 기금을 1인당 \$1,000씩 국제제단에 기탁한 클럽이다.

2대 조규식 회장은 이임사에서 허명숙 총재에 머리숙여 감사하며 후임인 취임회장 김병화 라이온과 1부회장 손성오, 2부회장 최매화, 3부회장 이규철 라이온에게 발전의 바램을 밝혔다.

이어 취임하는 김병화 2대 회장은 '봉사와 참여로 이루는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이라는 주제로 2016-2017회기를 이끌겠다는 격조 높은 봉사의 세계로 회원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취임사를 마무리하였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 충남세종지구 허명숙 총재는 이임하는 조규식 라이온의 노고를 치

사하였고 취임하는 김병화 라이온의 건승을 기원하였다.

세종·세명 라이온스 클럽의 스폰서 클럽인 연기라이온스 클럽에서는 박진만 회장을 대신해서 2016-2017회장인 이상문 라이온이 참석하여 축사를 대신 하였다.

내빈 축사는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전 의원

이 전해주었는데 허명숙 총재와 조규식, 김병화 회장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준데 대해 감사하였다. 그의 많은 내빈들의 성원과 축복 속에 이·취임식을 마쳤다. 이어지는 만찬연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김정환기자